

# I. 머리말

## 1. 조사개요 및 경과

영동군은 용산면 한곡리, 매금리, 미전리, 법화리 일원을 중심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여 2007년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결과 유물산포지 6개소와 고묘지역 1개소가 확인되었다.<sup>1)</sup>

영동군은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통보에 따라 서낭골유물산포지를 비롯한 6개소의 유물산포지와 고묘지역에 대한 시굴 및 표본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조사는 2011년 11월 21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제2011-0809호)에 의거하여 서낭골유물산포지 1(4,498㎡, A지구), 서낭골유물산포지 2(24,461㎡/B지구), 큰석국골유물산포지(21,165㎡/C지구), 돌밀애골백자가마터 및 유물산포지(26,900㎡/D지구) 등 4개소의 유물산포지(총 면적 77,024㎡)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시굴조사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하였으나, 보상지연과 지장물 처리 등의 사유로 중지하였다가 2012년 10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시굴조사결과 주거지(신석기~조선), 소성유구, 수혈 등의 생활유구와 백자가마, 토광묘 등의 생산 및 분묘유구가 확인되었고, 유구가 확인된 범위(6,412㎡)에 대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2)</sup>

표본조사는 201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서낭골유물산포지 2~4(79,790㎡/1~4지구), 큰석국골유물산포지(30,164㎡/5~6지구), 돌밀애골백자가마터 및 유물산포지(48,419㎡/7~11지구), 고묘지역(50,404㎡/12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조사결과 6지구(주거지 1기, 토광묘 6기)와 11지구(토광묘 1기)에서 유구가 확인되었고, 유구가 확인된 범위(964㎡)에 대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11지구에서는 토광묘 1기를 제외하고는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수습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sup>3)</sup>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와 표본조사결과에 따라 유구가 확인된 범위(7,376㎡)에 대하여 2013년 2월 19일에 발굴면경허가에 따라, 2013년 6월 5일부터 9월 12일(60일)까지 진행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 주거지(신석기~조선), 건물지(통일신라 추정), 소성유구, 수혈, 토광묘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빗살무늬토기편을 비롯한 토기편, 기와편, 백자편 등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을 수습하였다. 그리고 발굴조사결과에 대한 학술자문회의를 2013년 9월 12일에 개최하였고,<sup>4)</sup> 조사지역에 대한 기록을 실시한 한 후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유적에 대한 표본 및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1)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영동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영동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및 표본조사 약보고서』.  
3)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책.  
4) 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표 1. 지점별 표본·시·발굴조사 결과표

지점			면적(m <sup>2</sup> )			신석기		삼국	고려	조선										시대미상						계	
표본	시굴	발굴	표본	시굴	발굴	주거지	즙석유구	주거지	석곽묘	주거지	삼가마	구상유구	백자가마	수비공	저장공	소성유구	주공	토광묘	건물지	기단석축	수혈	주공	소성유구	즙석유구	부석유구		토광묘
A	B <sup>5)</sup>		4,498	2,723		1	1	1	1	1					1				2	1	5	5	1	1			20
B	A		24,461	333	1					1	1										2			1			6
C	C		21,165	60						1												2					3
D <sup>6)</sup>	F		26,900	3,296						1	2	1	4		2	12					2				1		25
1			23,351																								
2			13,232																								
3			28,534																								
4			14,673																								
5			12,985																								
6	D	17,179			876													1								2	3
	E			88																			1				1
7			9,396																								
8			7,350																								
9			3,917																								
10			4,442																								
11			23,314																								
12			50,404																								
계			208,777	77,024	7,376	1	1	1	1	4	1	2	1	4	1	2	12	1	2	1	9	7	2	2	1	2	58

영동군은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결과물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2013년 10월 4일에 발굴조사 완료조치 통보를 받았다. 2015년 9월 현재 영동 한곡리 유적이 조사된 지역에서는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07년 11월 23일~12월 23일 - 사업부지 문화재지표조사 실시(중원문화재연구원)
- 2011년 11월 21일 - 발굴허가(제2011-0809호)
- 2011년 11월 28일 - 발굴(시굴)조사 착수
- 2011년 12월 26일 - 보상지연과 지장물 처리로 인하여 조사중지
- 2012년 10월 19일 - 발굴(시굴)조사 재착수
- 2012년 12월 24일 - 발굴(시굴)조사 완료

5) B지점의 선돌과 상석은 시굴조사 A지점에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결과 상석은 부식토와 비닐이 혼입된 퇴적토 상면에 위치하고, 선돌 또한 이 퇴적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어 있어 근래에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6) D지점의 토광묘는 표본조사 6지구에서 확인되었는데, 발굴조사 결과 토광묘 6기 중 3기는 근대에 조성된 것으로 유구에서 제외하였다.

- 2013년 2월 19일 - 발굴변경허가  
- 정밀발굴조사 면적 : 7,376㎡, 조사일수 60일
- 2013년 6월 05일 - 발굴조사 착수
- 2013년 9월 12일 - 학술자문회의 개최, 발굴조사 완료
- 2013년 9월 30일 - 완료신고
- 2013년 10월 4일 - 발굴조사완료 통보

학술자문회의에서는 조사된 유구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신석기시대 원형 주거지는 이 지역에서 처음 확인되어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신석기 시대 말기로 편년된다. 둘째 삼국시대 주거지는 잔존상태가 좋지 않으나 출토된 토기로 보아 신라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통일신라시대 적심 건물지는 적심 노출 상태로 보아 1차레 정도의 건물 증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토기와 소량 출토된 기와 등으로 미루어 8세기 무렵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성격은 확실치 않으나 교통로에 위치한 역원시설과 관련될 가능성도 검토를 요한다. 넷째, F지점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가마는 출토 백자의 양식으로 볼 때 18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 축조에서 1차의 대대적인 보수로 규모를 줄였고, 18m 하단부에서 확인된 공방시설은 온돌과 2개의 수로가 셋트를 이루는 구조로 운용되었으며, 같은 시설이 붙어 있어 공방 역시 자리를 옆으로 옮겨 새로 축조한 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유구의 밀도가 낮고 전체적인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동일 사례의 유구들이 타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조사 완료 후 공사를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조사단에서는 2013년 9월 12일까지 발굴조사를 마무리 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하여, 영동산업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문화재조사를 완료하였다.

## 2. 조사단의 구성

영동산업단지 조성부지인 영동 한곡리 유적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 〈시굴조사〉

- 조 사 단 장 강경숙(중원문화재연구원장)  
 책임조사원 김병희, 김경호(중원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 사 원 유용수(중원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준 조 사 원 오운석(중원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김준오, 이용우(중원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발굴조사〉

- 조 사 단 장 강경숙(중원문화재연구원장)

책임조사원 조순흠(중원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조 사 원 송석중(중원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준 조사원 남궁 윤, 김은주(중원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윤성식(중원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직명은 조사당시의 직명임

보고서의 체제는 I장 머리말, II장 조사지역의 주변 환경, III장 조사지역의 현황 및 주변유적, IV장 시굴조사, V장 표본조사, VI장 발굴조사, VII장 고찰, VIII장 맺음말,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수습한 목단에 대한 자연과학분석(연대측정)과 목제방망이에 대한 보존처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는 보고서 말미에 부록으로 전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보고서 발간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담하였다.

총 괄 조순흠  
유물정리 송석중, 김은주, 윤재윤  
유물실측 황선희, 박원호, 정미옥  
보존처리 장성주, 남은하  
유물사진촬영 송석중  
도면교정 및 편집 송석중, 조록주, 윤재윤  
원고작성 송석중, 조록주  
교열 및 감수 강경숙, 조순흠

끝으로 현장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영동군청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장진욱 님 등 관계자분들께도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